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행정자치부/서기관 김병규

금년 2월초쯤에 직장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는 일본어로 쓰인 책을 받았다. 이 책은 세계 제일의 측정기기 메이커 掘場製作所 창업자(회장)인 掘場雅夫(호리바마사오)씨가 직원들의 일하는 스타일을 107개 유형으로 섬세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내가 이 책을 받은 당시, 일본 현지에서는 2000년 10월 출간 후 3개월만에 50만부가 팔려 비즈니스 부문1위로 소개되어 었고, 직장인이 읽어 볼만한 유익한 책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번역판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게 준 사람은 내가 일본어를 좀 한다는 것을 알기에, 시간이 나는 대로 내용을 정리하여 자기에게도 이메일로 보내 주고, 다른 직원에게도 제공하여 참고토록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국내에서 구입하기 비싼 책을 받은 고마움과 나 역시 직장인으로 이 책을 한번 읽고 싶은 충동을 느껴, 일주

일 단위로 1章씩 요약하여 이메일로 5章까지 보내주었다. 그러다가 3월초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장기간 지나쳤는데, 지난 4월 말경 모 일간지 신문에 이 책이 크게 소개되었다. 6개월만에 300만부 판매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이고 국내에서도 번역판이 발간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번역판까지 나온 마당에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자 못내 아쉬운 감이 들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신경을 썼더라면, 번역판이 나오기 전에 바쁜 직장인이 가볍게 읽어 볼 수 있는 요약자료를 만들어 마무리지을 일을 도중에 중단했으니 말이다. 어떤 일이건 항상 시기를 잘 맞추어야 일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아무튼 아쉬움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책 전체를 읽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주 일요일에 하루 온종일 집에서 쉬지 않고 나머지 3章을 읽었다. 그리고 8章 237쪽의 책 분량을 50쪽으로 요약·정리하여 우리 부처 전자게시판에 올려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게시후 10일만에 200여명이 읽어 본 것으로 나타났고, 흥미 있게 잘 읽었다는 감사의 이메일도 받아 그런대로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내가 평소에 생각한 「일 잘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의 기준이 상당히 동떨어진 것들이 많

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이중 일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한 3가지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어느 면에서는 미덕이고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훌륭할지 모르나,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음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는 자기주장의 시대다. 세계화 속에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외부에 나와 열심히 일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 반대의견을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사람

회의중에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 반대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습하여 논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반대의견에 대해 바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반대의견은 「당신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상사 앞에서 당신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면 지켜보는 상사로부터 당신은 백기를 든 사람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에서 자신과 반대의견이 나오면 자신을 어필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겨 철저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 흐름을 감지하고 반대의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한다.

○ 동료의식이 강한 사람

회사는 동료간 경쟁의 장이기 때문에 주위의 동료의식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30대는 체력과 희망이 있고 개인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시기이다. 그런데도 회의 등에서 동료나 상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회사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상의 3가지 일 하는 스타일은 특히, 우리와 같은 50대 직장인에겐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온 직장분위기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는 「일 못하는 사람」으로 이 책은 분류했다. 나는 이러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서 일 잘하는 대열속에 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개인의 독창적인 특징과 신념을 토대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